



머릿니 감염 예방 안내

제 2018 - 68호

담당자 : 강은영

학부모님께

최근 언론을 통해 집단생활에서의 ‘머릿니’ 발생이 간헐적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에 머릿니 감염 예방 수칙을 안내드립니다.(출처: 질병관리본부)

단체생활 감염병 예방수칙

- 머리를 자주 감아서 두피를 청결하게 하고, 젖은 머리카락은 잘 말리기
- 운동 및 야외활동 후 귀가 시에는 옷을 세탁하고, 샤워나 목욕 등 청결한 위생관리
- 감염 급우(친구)의 베개, 모자 등 공동사용을 금지하며, 만약 사용 했다면, 뜨거운 물에 세탁 후 건조
- 꼼꼼하게 잔류 머리카락이 없도록 청소
- 개인위생관리가 잘 되고 있는지 정기적인 확인
- 학생 감염 확인 시 학급(반) 단위의 집단치료를 권장 - 1주 간격으로 2회

◆ 가정에서의 협조 사항

- 운동 및 야외활동 후 귀가 시, 옷을 세탁하고, 샤워나 목욕 등 개인위생관리 생활화
- 특히 머리를 감은 후 잘 말리기
- 학생의 머릿니 감염 확인 시 온가족이 함께 동시 치료 권장
- 1주 간격으로 2회
- 학생의 베개, 모자, 옷 등은 자주 갈아주고, 가구 및 잔류 머리카락이 없도록 꼼꼼하게 청소합니다.(진공청소기 권장)



붙임 1 머릿니 감염증 개요

매개체의 특징	3mm크기로 3쌍의 다리에 강력한 발톱이 있어 두피 근처 머리카락을 잡고 살며, 암컷은 3개월간 숙주에 살면서 300개의 알(서캐)을 생산함
전파경로	감염자의 머리 직접 접촉 또는 침구류나 머리빗 공동 사용에 의해 감염 가능
임상증상	심한 가려움이 주 증상이며 많이 긁어서 진물이나 딱지가 생길 수 있음
감별 진단	비듬, 지루피부염 등 습진, 농가진 등 세균감염, 만성단순태선
치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물리적 치료 : 머릿니의 성충과 알(서캐)을 몸에서 제거 약물 치료 : Pyrethrins과 piperonyl butoxide 또는 Lindane shampoo를 머리에 도포하며, 서캐는 없애지 못하므로 1주일 간격으로 재치료 시행
합병증	긁음으로 인한 찰과상으로 2차 세균 감염 가능
예방	<ul style="list-style-type: none"> 환자와 감염 가능한 물건과 접촉(모자, 헤드셋, 옷, 수건, 빗, 침구 등) 피하기 집안 침구와 옷을 뜨거운 물로 세탁하고 말리기

붙임 2 머릿니 Q & A

Q1. 머릿니가 심각한 질환을 유발합니까?

심각한 질환이 아니지만 머릿니가 두피를 물어서 흠혈하므로 출혈과 가려움증을 동반한 피부병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Q4. 머릿니에 감염되었을 경우 어떻게 조치해야 합니까?

- 가까운 병의원을 방문하여 치료를 받으시고, 감염환자의 베개, 모자 등은 뜨거운 물에 세탁 후 건조(54.4도 이상에서 5분 이상 노출 시 사멸)시킵니다.
- 진공청소기 등으로 가구와 잔류 머리카락 제거 등 꼼꼼한 청소가 머릿니의 전파를 예방합니다.
- 약을 바른 후 1~2일 이내 수영을 하거나 머리를 감으면 치료의 효과가 떨어질 수 있으므로 치료법에 따라야 합니다.

2018년 6월 20일

옥 구 초 등 학 교 장